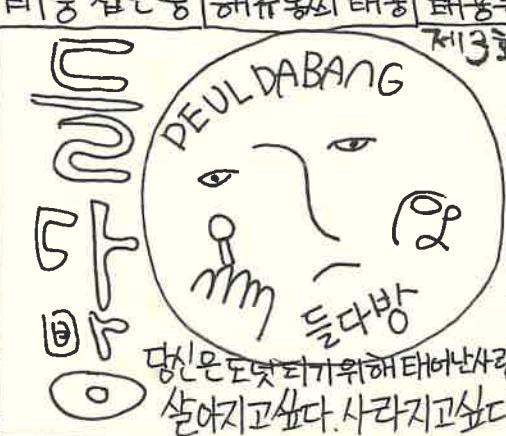


오늘도 들다방에는 사건사고가 끊임이 않는다. 조수달씨(종로구25)는 은 윤분을 토한다. "손님들이 저보고 아가씨라고 불러요." 손님들의 대상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저 결혼했고요, 아가씨 아니에요, 그게 실례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더니 아줌마 아닌게 어디냐" 하면서 씹소리한다고 한다. "심지어 저보고 절대 맷어주려고도 해요. 절대인 한데 잘한다면서요" 아주 머리가 아파서 개질 지경이다. 수달씨는 어느날 극심한 스트레스로 손님들 머리를 들다방 대왕국자로 때리는 꿈까지 꿨다고 한다. 여러모로 물세가 많은 사람들이다.

들다방에는 결혼 안 하는 사람, 키어도 많이 오고 (쉽게 말해 줄께요, 온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애초에 장애인 한테다. 잘한다. 무슨 장애인이 연인의 대상입니까? 차별입니다. 결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아가씨, 아줌마, 그것도 웃겨요. 웃겨서 웃깁니다 배꼽 떨어져서 어디 가출 했습니다. 하여간.. 타인에 대해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래도 말해버렸습니다. 해도. 목구멍에 머무르게하세요! 이상 혼자기자(분노의 혼자)



그는 교회 종이 왜 필요했을까....

누가 교회 종을 울렸을까. 들다방이 위치한 유리빌딩 종을 주말에 개척교회가 대관해서 교회 공간으로 쓰적이 있었다. 그런데 예배에 꼭 필요한 교회 종이 없어진 것이다. 그날의 신성한 예배는 그렇게 종소리 없이 이루어졌다. 알고 보니 그 종은 자립 생활주택에 사는 김모씨님의 집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는 한때 시설에 살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이제는 냉담자(교회 안 믿는 신앙인)이 된 것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집에 교회 종을 가져갔을까. 사실은 참된 신앙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려 했는지 모른다. "진짜"라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흠씬 것인가. 사실 좋은 흠씬은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으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권리와 티켓을 외칠 때. 도록 막은 권리를 티켓을 찾는 것처럼 말이야... 도둑은 과연 누구인가? 그냥.. 소리가 이뻐서요...

빼앗긴 권리, 빼앗긴 땅

오늘의 운수 꼴라보세요.	행운의 숫자 666
① ② ③ ④	1182회 로또당첨번호 1961 1 1 6 4
두구 두구 두구 두구	→ 당첨자 서울시오모씨
① 귀인 나타나지만 못 만났다. ② 수박을 먹자. ③ 머리가 가려워요. 쟁자. ④ 알 pacman 자자.	→ 당첨금 뜻 100K주 주주주주주주주주주 수박수박수박수박 pacman pacman pacman 수박수박수박수박 수박수박수박수박 수박수박수박수박 수박수박수박수박 수박수박수박수박

충격!! 셋더퍽 사건!

선생님!! 짱구님이 욕해요!

"선생님 짱구님이 욕해요"
오늘도 들다방에 사건이 빠졌다. 어떤 학생이, 짱구(가명)가 밥 먹다가 "셋더퍽"이라고 욕하면서 있었다. 처음 들는 영어 욕설에 놀란 들다방 스태프들. 그러나 긴장된 순간, 그 욕을 자세히 들어보니.... "쉬었다 갈꺼야"였다.... 쉬었다 갈꺼야가 셋더퍽으로 들렸던 것이다. 욕은 나쁘지만 오해도 꿈을.... 상태의 발음을 잘 들자... 오늘도 교훈 하나 얻고 들다방 스태프는 야근에 야근을 하여 늦게 되는 합니다....

너무많은 야근은 셋더퍽

쉬었다 갈거야 대실 2000만원

들다방제보...